

문제1. <3자비교>

1. 일단 첫 문장자체를 문단으로 구성했는데, 1문장은 1문단으로 쓸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문단과 형식적으로 이어서 쓰시고.
2. 전체적으로 형식이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한다기보다는 제시문 (가),(나),(다)를 죽음이 라는 관점에 따라 요약한 글로 느껴져요. 내용상으로 사실 틀린점이 없고, 근거서술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비교라기보단 형식적으로 요약으로 느껴지네요.
이 답안에선, 제시문 (나)와 (가)/(다)를 인식의 여부로 나누고 (가)/(다)가 또 인식을 하지만 인식의 방향차이로 구분이 된다고 해서 2차적인 비교형식으로 쓰면 더 발문에 요구에 따르는 좋은 답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식으로 답안을 서술하는게 이 문제뿐만이 아닌 모든 연세대학교 3자비교 기출문제에서 나온 공통된 형식이기도 하구요.
3. 내용상으로 하나를 지적하자면, 사실 제시문(나)에서 고릴라들이 죽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고 추측한건 관찰자인 '인간'의 시점에서 바라본 것이고, 고릴라들의 관점은 나타나지 않아 해석의 방향이 열려있어요. 따라서 고릴라가 죽음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서술하시려고 했으면 제시문 (가)와 비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시문 (가)의 관점을 수용하면 죽음은 인간만 사유할 수 있는 특수성이기 때문에 고릴라는 인식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완벽한 근거서술이 되면 좋은 답안이 됩니다.
4. 결론적으로 2번 첨삭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기출분석을 통한 비교를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2. <표 대응/ 논평>

1. 일단 제시문을 통해 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에 대한 설명이 먼저 이루어진 후, 대응이 이루어져야 자연스러운 논리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표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2 문단에서 바로 분석을 해버림으로써 논리가 이상해집니다. 따라서 표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리가 영성해집니다.
2. 만약에 표 해석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 글을 보더라도, 제시문 (가)의 주장은 죽음 = 삶과의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분석한 1문단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논리 자체가 불분명 합니다. 그대로 뜯어보면 '(가)의 입장에서 (라)는 죽음을 유발하지 않는다. 왜? (가)는 죽음을 수용한다, 그래서 (라)의 실험은 배설물과 관련된 상황이 죽음 연상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시했는데 각 문장들이 근거는 하나도 제시되지 않은 채 결론들만 나열되고 있고. 논리적 연결고리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3. 3문단도 "제시문 (다)는 사람들이 추악하고 악취가 나는 죽음의 결과를 예상하기에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제시문(라)의 실험 1과 실험 2는 배설물과 관련된 상황은 죽음에 대한 연상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맞는 말이지만, 결론만 제시된 채 근거들이 전혀 없이 논리성이 떨어지구요.
4. 논평 자체도 표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결론이, (라)는 따라서 배설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데, 실험자체에서 배설물 관련된 상황에서 죽음연상이 떨어짐은 제시문 (다)에 따르면 충분히 타당한 내용이라고 바로 뒷문단에서 제시하지 않았나요?

자신의 논리가 하나의 글에서 뒤집히면서 통일성까지 떨어지게 되고 논평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주장을 어떤 근거를 통해 서술하고 있는지 모르는 답안입니다.

총평 : 전체적으로 1번문제는 내용상으론 큰 문제가 없지만, 형식적으로 요약에 더 치우쳐 비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번문제는 전체적으로 대응과 논평이 결론은 또한 논리마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자신이 어떤 논리를 세우고 있고 그에 따라 필연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서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가 연세대학교 기출문제중 난이도가 낮은 문제이기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